

2025년
12월

최신 해외연구정보 동향

KOICA ODA연구·교육원

Development Rethought or Forgotten? A Review of the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24

개발, 재고되었는가 아니면 잊혀졌는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24 무역개발보고서 검토

본 논문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¹가 발간한 '2024 무역개발보고서'의 내용과 전략적 제언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 개요 2024 무역개발보고서는 심화되는 불균형, 가중되는 채무 부담, 그리고 다자 협력 약화로 특징지어지는 세계 정치 경제에 대한 냉혹한 진단을 제시한다. 이에 대응해 본 보고서는 글로벌 개발 모델의 근본적인 재고를 촉구하며 다섯 개의 장에 걸쳐 다음과 같이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제1장은 전반적인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을 제시한다. 고금리,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재정 긴축 등 요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만과 불평등을 고착화시킨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저성과와 높은 변동성의 뉴노멀(New normal)은 글로벌 사우스의 발전 역량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p. 4).

제2장 및 제3장은 변화하는 세계 무역 구조와 이것이 개발 전략에 미치는 직접적인 함의를 검토한다. 본 보고서는 UNCTAD가 역사적으로 옹호해 온 제조업 주도 구조 전환에서 눈에 띄게 벗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제조업 및 수출 주도 성장에 기반한 발전 전략의 종말을 시사한다(pp. 53, 83).

제4장은 상품 무역과 금융화로 초점을 돌려, 금융 시장이 상품 가격과 자본 접근성을 점점 더 좌우함에 따라 자원 의존형 경제가 직면한 위험을 강조한다. 또한 고소득국의 기후 금융 자금 공여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을 요구한다(p. 160).

제5장은 조세 및 금융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재정 역량 강화, 조세 회피 방지, 불법 자금 흐름 대응을 위한 경로로 제안된 'UN 국제 조세 협력 기본 협약'을 지지한다(p. 187).

보고서의 각 장은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한 풍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지만, 전반적으로 통일된 분석 틀이 부재하여 분석의 일관성 및 새로운 비전 제시라는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나아가 보고서가 제시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 특히 서비스 중심 개발 전략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정학과 국제협력이 개발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¹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기관/학술지명: Development and Change
- 문서종류: Assessment
- 발행연월: 2025. 11. (Early View)
- 저 자: Baptiste Albertone, et al.
- 주 제: Trade
- 키워드: Trade and Development, Global South, Non-tradable services-led development
- 출처: <https://doi.org/10.1111/dech.70030>

Investing in Energy Security: How Ukraine Is Transforming Its Energy System in Wartime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 전시(戰時)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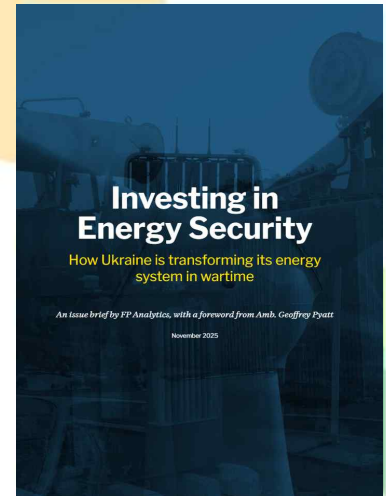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전력 부문 재건이 모양새를 갖추게 되며 새롭게 체결된 미국-우크라이나 경제 동반자 협정¹을 계기로, 외국 기업 및 금융 기관의 에너지 투자 관련 지원에 대한 즉각적인 필요성과 큰 기회가 동시에 조성되었다. 미국-우크라이나 협정은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통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 등 핵심 기반 시설의 재건 및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우크라이나는 미채굴 가스 매장량, 풍부한 풍력 및 태양광 잠재력, 그리고 방대한 가스 저장 및 송전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배터리 저장 시설과 같은 우크라이나가 당면한 에너지 수요 분야에 투자하면 단기적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현대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신규 투자는 혁신적인 금융 및 보험 메커니즘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부문을 혁신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며, 국제적 파트너들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잠재력을 지닌다. 이러한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전담 외교, 부문 간 협력, 목표 지향적 정책 개혁, 그리고 다양화되고 분산된 에너지 기술의 전략적 통합이 필요하다.

본 문서는 포린 폴리시 그룹(The Foreign Policy Group)의 독립 연구 부서인 FP 애널리틱스(FP Analytics)가 작성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및 지역 에너지 안보가 직면한 핵심 과제를 규명하고 에너지 시스템 전환 가속화와 그 과정에서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한다.

이 분석은 우크라이나의 풍부하고 다양한 천연 에너지 자원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광범위한 에너지 인프라의 강점과 기회, 전후 전력망 복원력 향상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에 대한 노력을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문서는 우크라이나의 미래 에너지 확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권고 사항들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 있다.

¹ U.S.-Ukrai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관/학술지명: Foreign Policy
- 문서종류: Issue Brief
- 발행연월: 2025. 11.
- 저 자: FP Analytics group
- 주 제: Energy
- 키 워 드: Ukraine's power sector, Energy Security, Grid resilience, Decentralization
- 출 처: <https://shorturl.at/iUz66>

Grounds for Growth? Institutional Mechanisms of Value Chain Upgrading in Ethiopia's Coffee Sector

성장의 기반? 에티오피아 커피 부문의 가치 사슬 개선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연구 목적

농업 상품 수출은 저소득국에게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농산물의 국내 가공(domestic processing of commodities), 즉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의 기능적 업그레이드는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선호되는 경로로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경쟁력은 있으나 국내 가치사슬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몇몇 국가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접근법 및 방법

본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 및 기타 데이터 출처를 활용한 사례 연구 접근법을 채택하여 에티오피아의 다양한 커피 가치사슬 발전에 대해 국가의 제도적 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메커니즘 관점에서 분석한다.

연구 발견

연구 결과는 첫째, 가치사슬 개발에는 원활하게 기능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에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적의 제도 설계는 더 광범위한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달려있다. 가치사슬 개선은 여러 이해관계자 간 조정(coordination)을 필요로 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 개입과 제도적 구조의 불안정은 이를 쉽게 훼손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고품질의 수출용 커피 원두의 국내 거래 금지와 같은 정책은 가치사슬 개선 노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외화 획득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는(거래 금지보다는) 가치사슬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정책적 함의

정책입안자에게는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상충되는 목표(Trade-offs)들 사이 절충점을 고려하는 것은 한 가지 목표(외화 획득)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서 수출용 커피 거래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지나치게 경직된 개입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풍부한 상품의 국내 가치사슬 개선이 반드시 경제 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은 아니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경우, 상품 수출로 창출된 외환을 다른 분야 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 기관/학술지명: Development Policy Review
- 문서종류: Article
- 발행연월: 2026.1. (Volume44, Issue1)
- 저 자: Hiwot Abayneh Ayele et al.
- 주 제: Value Chain
- 키 워 드: Commodity markets, Value chain, Institutional environment, Economic policies
- 출 처: <https://doi.org/10.1111/dpr.70047>

Measuring Cause of Death in Rural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 농촌 지역의 사망 원인 측정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망 사례가 집계되지 않고, 사망 원인이 기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사망률 추이와 원인을 신뢰성 있게 추적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본적인 공중 보건 데이터가 없으면, 각국은 보건 및 사회 복지 자원 배분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사망률 감소를 위한 개입을 시행 및 추적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보건 문제를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구두 부검(Verbal Autopsy, VA)은 사망자의 사망 직전 징후와 증상에 대해 가까운 간병인이거나 친척에게 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망에 대한 의학적 증명을 거의 또는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에서 특정 원인별 사망률에 대한 실증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난 쉬 뉴 툰(Nan Shwe New Htun)과 동료들의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의 특정 지역 510개 농촌 마을에서 발생한 3,413건의 사망 사례에 대해 구두 부검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모든 국가에서 비전염성 질환(NCDs)¹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NCDs에 기인한 사망률은 라오스의 54%부터 캄보디아의 70%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NCDs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질환을 포함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 NCDs에도 차이가 있었다. 주요 사망 원인은 방글라데시에서는 심혈관 질환, 미얀마에서는 뇌혈관 질환,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는 신생물(종양), 라오스에서는 소화기 관련 질환이었다. 사고 및 외상은 모든 국가에서 상위 5대 사망 원인에 포함되었으며, 라오스에서는 6%부터 태국에서는 13%까지 차지했다. 방글라데시의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과 신생물이 사망 원인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인구 통계 감시 시스템(Demographic Surveillance Sites, DSS)의 데이터와 일치한다. 단, 연구 결과는 구두 부검(Verbal Autopsy) 방식에는 사망 원인 할당에 대해 의사 간 진단 불일치와 같은 내재적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며, 표본의 일반화 가능성에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동남아시아 농촌 지역의 사망 원인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 신뢰성 있는 공중 보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 및 생체 등록 시스템의 작동과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¹ 감염이 되지 않는, 주로 유전적, 환경적, 생활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주 비전염성 질환으로 암, 심혈관 질환(예: 심장마비, 뇌졸중), 만성 호흡기 질환(예: 천식), 당뇨병을 제시한다.



- 기관/학술지명: The Lancet Global Health
- 문서종류: Comment
- 발행연월: 2025. 12.
- 저 자: Clara Calverta and Shams El Arifeen
- 주 제: Global Health
- 키 워 드: Death rate, South Asia, Non-communicable diseases(NCDs)
- 출 처: <https://shorturl.at/eJODd>